대학원생 세미나 14. 03. 27

International/intertextual relations :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 edited by James Der Derian, Michael J. Shapiro.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1989.

발제: 이재현/용채영

용채영: 결국 저자들의 논의는 Modern Man에서 출발, 이성적 인간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갈 필요가 있음. 포스트모던, 탈구조주의적으로 살고, 경험하지만 국가’의 근대적 구성이라는 방식은 깨지기가 어려움. 계속 국제적 위험을 정의하면서 국내적인 통제력, 이성적 정체성을 국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임. 이런 논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국제의 이항대립은 여전히 깨지지 않음. 아나키적인 ‘밖’과 질서의 ‘안’이라는 도식에 대한 해체가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Lake 등 기존이론들의 문제제기 역시 ‘근대의 이성적 주권적 인간’에 기반하여 근대담론 내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뿐임. 그렇다면 인식론적으로 실증주의 비판하는 차원에서 자아/타자 등 탈구조주의의 문제설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여전히 ‘토대론’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론 증명하는 태도 등이 아닌가?

탈구조주의 이론가들은 맑시즘 기반, Cox 등의 비판이론 등 구조 - 실천 어느 한 쪽에 우위를 둘 수 없다는 입장, 하나를 선택하는 토대론적인 입장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함. 이론가가 어느 하나의 고정된 토대론, 기반을 갖고 이야기 하기가 어려움. 토대 자체에 대한 기반도 비판.

저자들은 역사성, 근대주체에 대한 접근에서는 푸코의 이야기를 가져옴. 각 논자들을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지. 또는 Jarvis의 Ashley 비판대로 탈구조주의를 ‘도구적’으로 가져온 것뿐인가?

이재현: 근대적 합리성에 기반, 타자를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나. 이성적 인간이 이항대립을 갖고, 폭력적 사고체계를 갖는가? 애슐리의 비판도 이성적 인간, 주권적 인간/이항대립을 밀접하게 봄. 역사적으로 타자에 대한 이해가 없던 것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항대립을 버려야 되는 수준은 아닌가?

전재성: rationality가 아니라 Rationality centric한 것을 비판함. 인간이 자신을 이해할 때 이성적이라는 패러다임이 유일하게 옳다는 것은 아님. 애슐리가 모던 rationality가 갖는 critical한 부분도 있음. Modern한 것이 critical하지는 않음. 좋은 것도 있는데 counter-rational도 있음. 그 truth-regime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1989년 책인데 Connolly의 책에서 Constructivism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 1986년 세미나에서 쓰여짐. Wendt의 논문 1987년에 나옴. 애슐리의 월츠 비판 논문은 1984년 등장. 푸코 죽을 정도, 1970년대-80년대 후반의 리딩을 기반. 구성주의 보다는 나옴. 그 때 agent-structure의 물질성을 주는 것을 비판. 웬트가 structuralism을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데 이를 미리 비판, 굉장히 앞서 나간 이야기임. 당시 신-신 논쟁보다는 비판의 수준이 높았음

그런데 탈 구조주의 IR은 왜 다 죽었는지도 생각해봐야 함. 현재 더 데리앙만 함. So What? 왜냐하면 탈 구조주의는 어떤 theorize를 하는 순간 망함. Classical realism은 attitude임. 태도를 견지하면서 반응하는 것이지 이론화 하는 순간 자가당착임. 고전적 현실주의에서 월츠가 태도를 실증주의화해서 실패. 포스트 모더니스트 들의 태도 역시 이론화 하면 애슐리 이후? 이걸 실증주의적 이론화한다면 모순적 상황이 발생. Connolly는 이를 다룸. Deconstructivism. Constructivism에 대한 답. 푸코도 late-modern정도, post-modern정도. Connolly와 애슐리의 견해 차, 애슐리는 더 회의주의적. 코넬리는 포스트 모던 정신에 기반한 이론화가 가능하다고 봄. 그것은 서구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의 태도의 핵심 요소를 골라내서 실증주의 이론화는 안 해도, 정식화, trend, 명제 유추에 성공했는가.. 성공 한 경우도 있고, 못 한 경우도 있음.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empirical chapter, 포스트 모던의 ‘태도’로서 비판의 두 층위. 구체적인 security, war등의 referent에 접근방식을 비판하는 포스트 모던의 비판이 있고, inside/outside가 가장 큼. 각론 작업은 조금씩 다 하는 중이고, territory를 만들어가고 있음 spy 등. 그것도 critical linguistic turn. 기존의 post-positivist에서는 가장 큼. 누가 더 sovereign인가, 이 말 자체의 modern한 정신세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뒤에도 다 나뉨. 총론적 작업은 다 끝남. 애슐리 근황 X.

Theoretical 작업 자체가 political practice라고 봄. 작업하기가 쉽지 않음. 포스트 모던의 작업 방식은 역사를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만 본다. Empirical은 아니다. 같은 포스트 모던이라도 자세가 다름. 이미 월츠 다 깼다고 생각? Critical response, 뭐가 남냐? 주권/아나키 비판. Inside/outside도 그러함. IR theory라는 것이 domestic의 negation으로만 있음. International 그 자체로 봐야지. anarchy로만 봐야지 이외의 것, without으로 보는 것, 통합성으로 하나로 보게 해주는 교정 효과 중에 가장 심도 있는 것임. 작업이 안 나온다고 해서 패러다임 자체의 문제가 끊겼는가는 다른 이야기임.

포스트 모던 리얼리즘 등, discourse는 power-laden language practice를 봄. 텍스트 속의 형식만 봄. 텍스트, IR의 intertextuality의 discourse적인 성격을 보는 것은 power에 대한 민감성. Intertextual relation의 power based된 부분을 메타이론적으로 작업해야 함. 두 번째, embodied mentalism의 경우임. 이게 메를로 퐁티로 다시 가서 ‘살’ ‘몸’을 봐야 함. ‘실체’를 언어로 표현할 때의 언어-신체의 격차가 나타나서 intertextual politics가 가는 것처럼 inter-body relation도 있음. 태어나면서 뭔가 지각하는데 interpretation code가 있는 것처럼 body가 있을 때도 perception code가 있음. Inter-body의 relation을 내 body에 sovereign을 주면서 나눔. IR과 intertextual에서 물질적 기반을 느끼는 내 몸의 지각의 관계를 어떻게 나누나? Textuality만 따져선 안 된다. 리얼리티를 모르고 언어화된 것만 보는 것과, 리얼리티를 보는 materiality를 보는 것. 언어화되기 이전의 지각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안 됨.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보려면 inter-textuality이전에 inter-perceptual한 것을 봐야 함. 신체성의 문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주체’를 없애고 나니까 normative한 뭔가가 없음. 주체는 effect이다. International의 man은 전쟁의 효과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주체가 없는 의식의 의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상적 전통이 없다. 무아의 사상적 전통. 무아가 없으면 disarry로 감. 진정한 ‘무화’가 진정한 긍정이라는 가치체계가 없으면 포스트모던은 구성주의로 못 간다는 것임. 포스트모던, 데리다-불교. 자아라는 것이 하나의 기호이면, ‘아’상은 허상이다. ‘아’는 언어적으로 produced된 것이다. 그 자아를 극복하면 전체와 하나된다고 봄. 연속성은 없지만 새 차원의 dimension이 가능하다는 것임. 진정한 의미의 post human의 단계에 대한 어렴풋한 가정이 없이는 기 사람은 post-theory로 살지 못한다. 포스트 모던의 analysis위의 포스트 모던의 규범이론을 어떻게 만드는가? So what? 그런 주체의 사라짐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이상, 주체가 사라진 그 다음, post-post-modern을 알고 post-modern의 혼란상을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됨.

최인호: 책에서 textuality의 권력정치적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데, 언어를 타인을 지배, 구속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는가, 그런 question도 연구질문이 될 수도 있음. 언어, 그런 차이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모든 언어가 잘 못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정치적 활용만 문제시하는 것인가? 뭔가 인간의 조직적 생활을 만들어내기 위해 활용하는 것과?

전재성: 정치성이 잇는 것과 지배성이 있다는 것은 다름. ‘군’. Security는 공유될 수 없음. 이미 ‘적’개념을 상정함. 상황은 지배의도가 없다 하더라고,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것, 지배성이 없는 민주적, power politics가 항상 있음. 언어화 할 때 만들어지는 정치성보다 바르트의 논의처럼 하나의 텍스트에는 미학적 부분도 있음. Code의 stuff가 있는 것, represent한 순간, monopolized 진리다라는 것이 텍스튜얼리티다. 문자 만든 사람의 author도 비판. 바르트 식의 문예비평에서는 옳지 않음. 문화적 코드가 삽입, 독자가 의미 생산. 독특하게 모던한 방식은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 하나에서 남을 지배, 더 domination이 들어가는 것임. 의도적, 비의도적일 수가 있음. 휴전선 이북의 것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북한’과 ‘조선인민공화국’은 다름. 작은 practice하에 스며든 하나의 것이 잘못되었다. 표상의 power-truth regime이라는 것?

북한이라고 부르듯, ‘타자’라고 부르듯. 어떻게 부르든 폭력성, 지배성이 상정? 부르는 순간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남. Insription이 들어남. Subject를 없애지 않는 한, 내 subject의 value도 사회적으로 주입된다.

이재현: embodied mentalism으로 간다면 material/ideational을 구분을 비판해줄 듯.

전재성: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뇌의 과정을 분해해 볼려고 한 것이었음. Mind-body 양자이론처럼 선후관계가 없음. 뇌의 것들은 없음. 내적 생각이 외부의 것에 드러나는 것임. 신경과학의 수준이므로 웬트도 어디 한 쪽에 commit하기 어려움.

모던한 태도로 포스트 모던의 이해가 가능한가? intertextuality가 국제정치에 강한 이유? 실제 국제정치는 ‘체험’할 기회가 없음. Evelyn Goh. 국제정치의 실체, 그것을 ‘보고’ 쓴 것을 결국 ‘쓰는 것’임. Intertextuality를 강요하는 과정임. 텍스트 들의 리얼리티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데. 국제정치학은 대부분은 intertextual만 보면서 함. 과정이 격리 되어 있음. 사회학, 정치학도 다 체험할 수 있는데 국제정치는 너무 거시적 현상이거나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어려움. 이미지, spy의 기술? 나의 intertextuality가 현실에서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 보기 어렵다. 포스트모던적 사고는 어렵다...

애슐리는 푸코적 이기 보다 데리다적임. Empirical보다는 메타적인 비판에 집중. 푸코. empirical파트에서 고고학, 계보학의 관점만 본 것인가? 계보학은 power-laden의 현상을 보는 것은 방법. 고고학은 인식방법의 reference를 공략. 애슐리는 고고학에 가까움. 실제 임상, 감옥 등의 미세권력에서 보는 것은 다름. 계보학적이지 않음.

최인호: 권력관계에서 벗어나자는 것을 제안?

전재성: 그것 역시 oppositional 태도임. 권력관계는 나쁘고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도 이분법적 사고임. 양분이 아니라 삼분, 사분으로 된다. 또는 분류 자체를 문제시 해야 한다? 대부분 우리. 왜 인간은 binary에 익숙함?

용채영: Donnelly의 혼성질서론 역시 근대적 태도, 토대론적 인식론의 가정을 깔고 있음. 그 뒤를 넘어선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재성: 그걸 넘어선 것이 바텔슨 책. Geneaology of sovereignty. 이 내용을 다 깔고 씀. 1996년 책. 담론도 극복하고 empirical도 극복하는 것을 어떻게 따라 잡는가? 상당하게 empirical 하게 따라잡지 못하면 안 됨. 주권에 대한 다양한 담론적 비판. 3세계에서의 Sovereignty에 대한 비판이론도 상당히 읽어야 함.

용채영: 규범적으로 뭘 지향할 것인가?

전재성: 푸코, 좀 더 positive의 의미의 도덕론 만들고 있음. 일단 인식론적 비판으로 시작되어서 존재론적 해체로 가서 규범적 막다른 골목으로 감. 포스트 모던을 철학적으로 다 읽어봐야 하지만. 1장, 2장. 뭔가 규범적 목적을 깔고 있는데?

이재현: 인식론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니힐리즘 극복? 인식론, 존재론의 문제를 안고 더 적극적 규범론 제시 가능? 서양의 포스트모던론자들은 구성주의로 감. 그 다음에 where to? 최근의 deconstruction의 지형 중에 뭔가 나오는가? 규범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와 비슷한 듯. 애슐리는 소승불교. 전파가 폭력이다.

전재성: Otherness를 받아들이자? 자아/타자의 논의의 존재론적 뿌리가 안 나뉜다는 생각을 하면 해결됨. 이분법을 안 쓴다? 아예 안 쓴다는 것과 reify하지 않는다는 구분하지 않음. practice차원에서 깬다는 것은 Inside/outside의 조직원리를 깬다는 것임. 둘을 either/or로 표상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전체 글로벌 거버넌스의 복잡한 역사성을 보는 것을 방해함. ‘국제’를 이론화하지 않음. 국내를 기반으로 이론화했지 국제를 이론화 못함. 왜 그런지 이해 가능. 교통도 안 되고, 두 나라 다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공간이 합쳐짐. 1억 인구들 간의 관계, 지리적으로 다 떨어져있지만 하나로 가는 방식. 마키아벨리 식, 마키아벨리가 internationality를 전쟁 시에 무조건 virtu를 써서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domestic에서 construction order가 가능한가? 국가 간에서는 order가 잘 안 된다라는 negation으로 만 이야기 함. 폭력이 다 가능하다는 아님. 서구 사상가들 다 domestic고민하다가 international을 고민한 것임. 이 역전적 사고방식을 못 생각. Hierarchy를 적극적 이론화가 필요. 여태까지의 국제정치는 hierarchy의 개념을 별로 이론화 못 시킴. 21세기의 IR의 inter-textuality는 기존이론을 다 거세한 다음에 하는 것임. 그런 자원을 찾아 봐야 함. 맑시스트, 비판이론도 한계.

에블린 고도 그런 이야기함. East Asia의 이야기는 다 안 됨. 영국 국제사회학파, social compact theory를 함. 그것이 lake의 hierarchy에서 중국이 안 된다고 함. 하지만 그 역시도 존재론적 individualism이라고 이야기해줌. 그런데 구성적 위계와 계약적 위계로 나눔. 구성적 위계를 그 자체로 이론화 하는 개념적 툴이 있는가? 이는 정치 영역의 international hierarchy를 보는 개념적 툴이 없음. 국가간 계약 간에서 상호 간 약간씩의 포기로서 위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실제 정치가, 강대국들은 위계를 구성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pre-lingual한 practice로 만들어내고 있음. 중국은 그걸로 만든 뒤에 패권 반대, 주권 보존으로 지킬 것임.